

대한양계협회 소식

84 양계인 신년인사회 개최

- 1월 25일(수) 코리아나호텔에서 -
양계인 인화단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대



(이 상운 회장) (송 진원 국장) (이 재근 박사)

본회는 갑자년 새해를 맞아 금년도 양계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기 위한 「84양계인 신년인사회」를 지난 1월 25일(수) 오후 7시부터 코리아나호텔 22층 스테이트룸에서 개최하였다.

본회 고문을 위시한 업계원로, 자문위원, 협회임원과 농수산부 관계자들을 초빙 새해인사를 나누고 인화단결을 통한 양계산업 발전을 도모키 위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83년에 이어 본회 회장단(이 상운회장, 고 태영부회장, 박 준영부회장, 신 홍중부회장)에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이 상운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한 감사에 이어 김정소이전, 양계기반조사사업, 혈청검사, 선진지 견학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히고 금년에는 회원증가운동, 인화단결, 조직강화에 역점을 두어 나갈 뜻을 밝혔다.

이어서 송 찬원축산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





△ '84 양계인 신년 인사회

제사료값 앙등과 축산물 생산과잉 등으로 국내의 축산업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양계인들은 대동단결하여 양계산업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을 당부하였으며, 이 재근본회고문(고대 농대교수)은 격려사를 통해 양계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요구되는 바 양계인들이 스스로 먼저 화합하여 의견을 하나로 모아 행정부의 협조아래 일사불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뜻깊은 좌석을 마련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인화단결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주선한 회장단을 치하했다.

인사회는 기념축하 케익을 자른 후 식사에 들어갔다.

본회는 작년부터 매년초 양계업계원로, 협회고문, 자문위원, 임원, 관련 공무원들을 초빙,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양계업계의 인화단결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기뻐하고 있다.

검정소 조경위한 헌수사업 실시

- 양계인의 화합과 단결로 추진키로 -

본회는 전국 양계인의 숙원사업인 국제규모

의 닭경제능력검정소 1차공사(정지공사, 검정계사 및 내부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변 조경사업을 협회회원을 비롯한 유업기관, 단체, 업체로부터 헌수(검정소 조경을 위한 헌수 사업 취지문 본지 p99 참조)를 받아 실시키로 했다.

경기도 안성에 건립된 본회 검정소는 정부지원금과 자체자금 3억 3천 3백만원을 들여 1차 공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에도 나머지 검정계사와 부대시설을 하게된다.

여기에 모든 양계인이 화합과 단결로 조성하게되는 검정소 주변조경사업은 전국의 양계인과 관련기관, 단체, 업체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를 해 국내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유산을 후세 양계인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 것이다.

본회는 2월 1일부터 헌수자(1좌당 1만원)의 헌수를 접수하고 있는 바 현재 많은 회원들의 호응이 답지하고 있다.

계군혈청검사 대상농장회의 개최

- 작년에 이어 32개농장
1백 10만수 검사 -
질병예방의식 높아 신청해도
계군별 · 지역별로 선정

'83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그 성과가 높아 많은 양축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계군혈청검사(혈청학적 역학조사)사업의 금년도 대상농장 대표자회의가 지난 1월 27일(금) 오후 안양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가축위생연구소 담당관, 대상농장 대표 또는 농장장, 본회직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남중선지역과장의 사업개요 설명과 이 영옥박사의 세부시행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관심도가 매우높아 연구소 측에서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 3개 질병을 더 추가해 검사키로 하고, 참석자들은 국내백신의 품



△ 계군혈청검사 대상농장 회의

질 및 수급문제에 협회측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것을 당부한 바 있다.

계군혈청검사는 작년 7월부터 본회가 본회 자체자금과 (실수요자 부담 30%) 사료협회의 일부지원을 받아 가축위생연구소의 협조로 계군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측정,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해 적절한 방제대책을 강구해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신청농장을 계군별, 지역별로 결정하여 현지농장에 출장, 생산기록부와 투약 관리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품종·년령·계사의 위치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계군을 선정, 가축위생연구소 연구관 및 협회직원이 현지출장해 (계군의 건강조사, 가검물 채취) 가검물을 검사, 검사성적에 대한 의견서 및 조치사항을 각 농장에 송부하는 것이다.

농장에 출장, 혈청을 채취, 검사를 통해 추백리, 마이코프라스마, 감보로병, 바이러스관절염, 뉴캐슬병, EDS'76(이상 '83년도 조사사항),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후두기관염, 닭뇌척수염(이상 '84년도 추가조사) 등의 혈청항체검사를 하고 저항성검사(닭뇌척수염, 계두), 병성 및 약제내성검사, 기생충검사(꼭시뚝, 선충증)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로서 각 신청농장은 질병의 조기검색으로 확산방지, 약제의 선발 및 적기투약시기 결정,

백신의 효능평가로 방역프로그램 수립, 양계인 및 질병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한 지식 및 정보교환의 기대효과가 있다.

실제로 '83년 신청농장에서 계군의 백신역가가 높게 판명되어 백신의 더 이상 접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접종을 중단해 비용 8백여만원을 절약한 바도 있으며, 또 모농장에서는 백신을 했으나 역가형성이 되지않아(기술상의 문제 또는 백신역가문제) 재접종하는 경우도 있었다.

'84년도는 농수산부에서 재료비일체를 지원받아(1천5백만원) 작년과 같은수준(실수요자부담)으로 농장의 신청을 접수한 바 신청농장이 예상보다 많아 엄정하게 계군별, 지역별로 32개 농장(1백 10만수)을 선정해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그 대상농장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년도 계군혈청검사 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축산진흥기금 지원, 본회자체자금, 관련협회 지원금, 실수요자 부담금(전 예산의 25%상당)으로 실시하게 된다.

채란양계인 친목회 조직 -채란양계산업발전에 큰 활력소-



(고 태영 회장)

채란업 대군사양가들을 주축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고 채란양계업의 기술과 지식을 서로 나누어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키 위한 채란양계인모임(가칭 채란회, 모임 이름은 추후결정)이 지난 1월 16일(월) 발족되

었다.

20명의 채란회원들이 상호간 경조사 상부상조, 계란수집 판매사업, 사료·약품 등 공동구매사업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사료공장 직영사업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한회사 설립 등 부대사업을 염두에 두고 발족된 동회는 지난해 12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시 대군 채란양계인들 중심으로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창립할 뜻을 모아 본회 고 태영부회장(채란분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발기인을 구성해 이날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1984년도 제 1회 채란분과 위원회를 마치고 대우빌딩 지하 만다라 중국음식점에서 첫 모임을 가진 동회는 회장에 고 태영씨(진양농장 대표)를, 부회장에 민 덕기씨(덕일농장 대표), 간사에 노 광순씨(운암농장 대표), 감사에 한 명복씨

(교하농장 대표)를 각각 선임하고 이사 등 나머지 임원은 추후에 선임키로 했다.

정기총회(매년 1월)와 월례회(매월 15일)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한 동회는 앞으로 채란양계산업 발전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한편 회원들은 각자 사육능력이 채란계 5만수 이상으로 일일 전체 출하 계란이 1백만개를 넘는 것으로 보아 이 모임이 활성화되어 업자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업을 보호받는 것은 물론 채란양계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고 태영, 김 인영, 김 필선, 김 현, 노 광순, 민 덕기, 오 재정, 왕 희오, 이 원기, 이 신규, 이 학복, 장 호진, 주 병한, 최 영식, 최 정삼, 한 명복, 한 순, 한 응환, 황 석규, 함 준혁

'84 제 1 차 이사회 개최

- '83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84년도 사업계획(안), 수지예산 심의 -
정기총회 2월 8일 오후 무역회관에서 개최키로



본회는 올들어 첫번째 이사회를 이사·감사(24명 참석, 3명 위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먼저 이상윤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작년의 불안했던 대내외 정세와 극심한 불황을 맞았던

우리의 양계업계를 회고하고 임원진과 전회원의 일치단결로 잘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규성부장의 전회 이사회의록 낭독과 황인옥전무의 '83년 업무현황 및 사업실적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1월 20일에 실시된 '83 사업 및 예산집행감사 결과를 이재식 감사가 보고 했다.

신규회원 가입 및 제명건에 대해서는 상정안이 이의없이 통과되었으며 '83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심의에서는 예산편성과 실적이 차이가 나면 곤란하므로 과욕이나 무리하지 말고 실정에 맞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별 이의없이 통과되었다.



△ 금년도 제 1 회 이사회에서 신중히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이사진

또 공로패와 감사패 수상대상자는 15 명으로, 총회는 2월 8일 오후 2시 무역회관 중회의실(7층)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84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는데 원안대로 통과되고 또 양계 정보를 발행, 모든 양계업자에게 무료로 공급하여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자는 방안도 제의되었다.

본회의에 앞서 가진「사료전망 및 한국 양계산업의 구조적 전망」에 관한 세미나에서 박영인지 부장(미사료곡물협회한국지부)은「84년에는 사료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이유로서 국외적으로는 현재 미곡물시세가 하락세에 있고 또 84년도에는 PIK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 곡물가가 안정될 전망이며, 국내적으로는 사료정책의 변화, 농후사료원료의 다양화, 사료공장의 경영합리화로 인한 상승요인 흡수 외에도 농수산부장관의 사료가격 동결방침 등을 들었다. 이어 한국양계산업의 현위치를 高速道路論을 도입, 설명하면서 양계인이 살아남기 위한 선결요건으로 경쟁력의 강화, 생산성의 제고, 자구책의 강구 등을 제시하는 한편 공동대책기구가 활성화되고 고급용역이 좀더 효율

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1 회 육계분과위원회개최

- 사료값 변동 및 품질문제 세미나개최

지난 1월 27일 본회의실에서 제 1차 육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사료값 변동 및 품질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강사에는 김세현 부장(한국사료협회기획부)이 초빙되었다.

세미나의 요점은「사료값 동결에 따라 사료값 인상요인이 8.8%가 있으나 여러가지 가격안정 유도방법을 검토중이며 품질문제에 대하여서는 사료종류를 바꿀지라도 아미노산 함량비율, 지방함량 등 모든 영양소 성분을 분석하여 대체함으로써 전체 영양면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속된 월례회는 먼저 정보교환 및 전망검토에서 육계 농장출하값은 생체kg 당 1,100~1,150원을 유지하고 초생추가가격은 강세인 250~300원이며, 물량이 상당량 부족하고 입추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으며 휴업부화장에도 주문이 쇠도하는 것을 보면 2월 중순에는 상당히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료통계, 초생추출하, 중계수 등을 고려하여 현 육계업계를 검토해 보면 3월말까지는 그런대로 육계값이 안정될 것 같으며, 그 이후는 다시 불경기가 초래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육계업자도 주먹구구식이나 배짱으로 할 때는 지났으며 각종 정보매체, 세미나 등을 경청 분석하여 신중히 입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게 중론이었다.

한편 월 1회 열리고 있는 육계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안으로 우선 매달 참석할 수 있는 육계업자를 분과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조성 등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다.

또한 본회 통계조사위원들이 전국을 다니며 직

접업계현황을 청취하고 있는만큼 다음 월례회 때부터 참석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1 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사료값과 품질문제, GP센타 사업추진 세미나 -

84년도 첫번째 채란분과위원회가 채란분과위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6일(월)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료값 인상에 따라 현재의 난가수준은 작년에 비해 낮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채란업자 모두의 협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인과의 대화도 점차 개선·보완하여 난가안정을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것과 특히 최근 H社에서 설립중인 GP센타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또 GP센타 정착에는 얼마간의 과도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도 제2, 제3의 GP센타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우리의 현실정으로는 적어도 물량의 30%를 장악해야 가격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사료공장은 원료의 가격상승, 자금회전을 저하 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외상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하고 자체경비를 절감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올 3·4월 수입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의 영향도 다소 있을 것으로 풀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산자 협의체계를 정비하여 난가하락시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는 단결력을 보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했다.

본회 황인옥전무는 주요업무보고에서 기반조사보고회, 한국가금학회 창립, 주요사업내용 확정, 종무식, 시무식,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 1월 채란분과 위원회

전에 대하여 설명했다.

안전토의에 앞서 가진 세미나에서 사료협회 김세헌부장은 사료의 국산화문제, 배합사료 품질향상, 배합사료 가격안정, 사료정책 확립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양계산물 과잉시 수매 등 일시적 방편보다는 언제라도 스스로 물량을 억제, 적정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냉장 오국진차장은 自社의 GP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협회방문, 양계농가 현지조사 등 준비작업에 전력해 왔으며 3·4월까지의 기반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계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생적인 계란공급,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서 GP센타는 꼭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정착화시키는 것이 自社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두천분회 임원개선

동두천분회는 1월 23일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회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박재용씨를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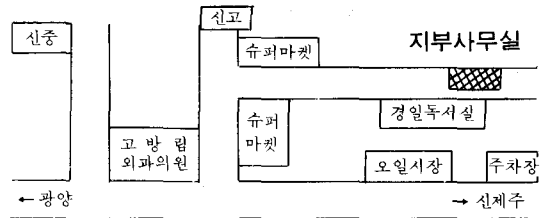
이날 선출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박재용
- 부회장 : 조성일
- 총 무 : 손배창
- 고 문 : 김 성
- 이 사 : 최영식 장호진 이원기 황현익
김필선 김형모 정인백 정인록
- 감 사 : 신호철 이호철

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이전장소 : 제주시 삼도일동 573-2
전화 : 2-0195

제주시부 사무실 이전

본회 제주시부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 1월 17



귀사의 광고매체 선택은 완벽하십니까?

월간양계는 귀회사 상표의 우수한 제품을 신속하게 양축가의 머리 속에 심어주는 국내 최고의 양계전문지입니다.

월간양계는 전국 양계인 외에도 각 시군, 행정기관, 지도소, 전국의 단위축협, 대학, 연구기관 등 독자층이 매우 광범위 합니다.

발행부수에 비해서 광고료는 극히 저렴하여 많은 스폰서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영리법인인 대한양계협회에서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월간양계 광고문의 : ☎ (752) 3571~2, 6917